

8월8일(월)/살후 1:1~2

제목: 우리 아버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잘못된 재림관을 바로 잡기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 바울은 이 편지의 발신자를 자기와 그의 일행이라고 밝혔다(1절).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였다(2절).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달리 후서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첫 번째 편지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살전1:1)라고 되어 있는데 반해 두 번째 편지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1절)라고 되어 있다. ‘아버지’ 앞에 ‘우리’ 라는 대명사가 붙어 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로 묘사하였다.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통치하고, 세계 위에 계시고, 세계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다.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표현이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지금도 아버지 노릇을 충실히 해주고 계신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 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은 항상 두 분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8월9일(화)/살후 1:3~12

제목: 하나님의 관리 대상자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장차 예수님 재림 시에 있을 분명한 사실 하나를 확고히 하였다. 먼저 바울은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였다(4절). 그들이 박해자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5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므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에게는 괴로움으로 갚고, 괴로움을 받는 자기 백성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데 이러한 일은 재림 시에 일어난다(6~7절). 하나님은 그 때 박해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하고, 자기 백성에게는 영광과 찬사를 받으신다(8~10절).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함으로 악한 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일을 당해도 의심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관리하고 계신다. 우리 일이 뒤죽박죽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뒤죽박죽도 하나님의 계획 하에 있고, 관리 하에 있다. 하나님의 최종 승리는 분명하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거기까지이다. 선한 일에 힘쓰고자 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자가 있다면 그는 영원한 형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관리 대상자 명단에 들어가게 된다.

8월10일(수)/살후2:1~12

제목: 악의 기운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말라고 하였다(2절). 바울은 재림이 곧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재림 직전에 있을 전조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아주 주목할 만한 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는 무법자요 곧 멸망의 자식이다(3절). 이 무법자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4절). 그는 사단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킨다(9절).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기의 입김과 영광의 광채로 그 무법자를 죽여 없애 버릴 것이다(8절). 지금 이 불법의 힘이 은밀하게 활동은 하고 있으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고 계시고 있다(7절).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가 활동하도록 일시적으로 놓아둘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그에게 미혹되어 거짓을 믿고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11~12절). 이 세상 가운데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악의 힘이 있다. 악의 기운이 센지, 교회의 기운이 센지 오늘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8월11일(목)/살후 2:13~15

제목: 나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여서 복음을 받아드리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거룩하여지게 하고, 진리를 믿게 한 것에 대해 감사했다(13절). 하나님은 그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드리도록 하셨다(14절).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울의 말과 편지로 가르쳐준 교훈을 힘써 지키도록 하셨다(15절).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음부터 바울의 원조를 받고 살도록 지정하셨다. 크리스찬은 항상 원조를 받고 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통해서 원조를 받는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붙여주신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원조를 받도록 하신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다른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게 만들어야 한다. 한 크리스찬이 다른 크리스찬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옆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인사는 빈말이 되어서는 안된다. 성도는 진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그에게 원조도 받고 도움도 주어야 한다. 나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다.

8월12일(금)/살후 2:16~17

제목: 영원한 위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대한 사도 바울을 붙여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직접 그들에게 다가가서 일하셨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셨다(16절).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것이다.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일시적인 위로는 아니라 항상 한결같은 위로이다. 그 위로는 그들이 선한 일을 완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다(17절). 바울이 고린도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도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내가 너와 함께 한다” 고 위로하셨다(행18:9~10). 우리는 혼자 애쓰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하나님이 그 숙제를 훌륭히 마칠 수 있을 때까지 힘과 위로를 주신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도 우리와 보조를 맞추시고 계신다. 우리의 배후에도 그리고 옆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숙제를 해 나갈 때, 혹은 고난 속에 처할 때 우리가 가진 가장 보잘 것 없는 무기로 싸우도록 내버려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영광스럽고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우리의 입에서 항상 선한 말이 나오게 하신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